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설 경 옥* 경 예 나 박 지 은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자녀의 성취를 중시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한국 어머니들의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어머니가 자기가치감을 자녀에게 수반시키는 경향(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존적인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느끼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체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이와 관련이 높은 부정적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 어머니 심리적 통제 →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완전매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초등학교 4-6학년 315명과 어머니 315명을 대상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어머니보고를,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은 어머니보고와 자녀보고를 사용하였고, 내재화 문제는 자녀보고, 그리고 외현화 문제는 자녀의 담임교사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연구모형 검증 결과, 예상대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체가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즉,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을 더 빈번히 사용하였고, 어머니가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을 더 사용할수록 자녀는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한국 어머니,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 부모자녀 관계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Tel: 02-3277-3918, E-mail: koseol@ewha.ac.kr

우리 사회에서 학업적 성취는 자녀 양육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 왔다(선혜연, 오정희, 2014). 자녀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에 대한 압박과 학업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나타내고(구경호, 김석우, 2014),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규교육이 시작되기 이전인 유아기부터 조기교육을 시작하며 치열한 학업적 경쟁에서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도태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한유미, 권희경, 2006; Park & Kwon, 2009). 자녀 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곧 어머니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Kim & Park, 2003; Park & Kim, 2006). 이렇게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로부터 어머니 개인의 가치감을 얻는 경향을 ‘자녀 성취 자기가치감 수반성(child-based self-worth: 이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이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기능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인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지금까지 자녀의 성취를 중시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기술한 연구는 많았지만(예: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이를 심리과학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김송이, 2008). 또한,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자기가치감을 수반시키는 경향이 어머니 자신과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없다. 국외에서도 최근에서야 Ng와 동료들이 미국의 백인 어머니들과 중국인 어머니들의 자녀 성취에 대한 가치 수반성 차이가 양육행동 차이를 유발함을 발견한 연구가 유일하다(Ng, Pomerantz, & Deng, 2014). 이에 본 연구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통해 자신에 대한 높은 가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취를 추구하는 현상인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들의 양육행동, 그리고 이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로,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김희화, 2005; Steinberg & Silverberg, 1986). 동시에, 전국 단위의 평가 및 국제 중학교의 등장으로 초등학생의 입시경쟁이 이미 가시화 된 상황에서 학업과 관련된 어머니들의 압력과 통제가 본격화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선혜연, 오정희, 2014). 이에 본 연구는 정규교육에서 공식적인 평가와 입시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입시경쟁 시작 단계에서부터 어머니들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방법과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했다.

자녀의 성취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 그리고 한국 어머니의 특성

Crocker와 Wolfe(2001)의 자기가치감의 수반성(contingencies of self-worth) 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가치감은 특정한 영역이나 범주에 근거하며 가치감이 수반된 영역의 종류와 중요성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은 가치감이 수반된 영역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가치감의 상승과 저하를 경험한다. 이에 가치감 상승에 따른 긍정 정서를 극대화하고 가치감 저하에 따른 부정 정서를 최소화하려는 동기로 목표를 선정하고 행동을 조절한다(Crocker & Knight, 2005; Crocker & Park, 2004; Crocker & Wolfe, 2001). 이와 같은 자기가치감은 미덕과 같은 개인내적 영역 뿐 아니라 타인의 승인과 같은

외부 요소나 대인관계에 수반하여 찾을 수 있다(Crocker, Luhtanen, Cooper, & Bouvrette, 2003; Sanchez & Kwang, 2007). 개인의 자기가치감의 근간인 자기구성(self-construal)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타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될 수 있으며(Gardner, Gabriel, & Hochschild, 2002),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는 타인이 '자기'가 되고, 타인의 성취가 자신의 성취가 될 수 있다(Aron et al., 2004). 이는 최근 10대부터 50대의 한국 남녀의 자존감 수반 영역에서 개인의 능력과 성품, 대인관계 그리고 가족이 주요 영역으로 나타난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된다. 예상대로 한국인에게 가족구성원 자체, 가족 간 사랑과 같은 가족 요인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감을 수반하는 주요 영역이었다. 또한, 흥미롭게도 가족의 명예나 지위 그리고 가족의 경제력이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에 속해 있었다(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이처럼 개인의 자기가치감을 구성할 수 있는 타인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만큼 학업적 성취, 사회적 유능성과 같은 자녀의 수행에 부모의 자기가치감이 수반되기 쉽다(Grolnick, Price, Beiswenger, & Sauck, 2007). 이러한 경향성은 독립적인 자기개념이 더 보편적인 서양보다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이 더 보편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Ng와 동료들(Ng et al., 2014; Ng, Pomerantz, & Lam, 2013)은 자녀의 성취에 수반시킨 어머니 자기가치감의 문화권 간 차이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국의 어머니들은 미국의 어머니들보다 높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수준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아직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경험적으로 연구된 적은 없지만, 한

국 성인 남녀의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성공은 한국 어머니들의 행복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다(박영신, 김의철, 2009). 마찬가지로 초중고,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공 경험으로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1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박영신 등, 2002). 또한, 20대부터 60대까지의 국내 성인 남녀의 자존감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총 11개의 영역 중 가족, 자녀, 타인, 국가, 사회와 같은 개인외적 요인으로부터의 인정 및 만족이 무려 7개 영역을 차지했다. 자존감의 영역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자녀에 대한 만족 요인은 한국 성인 남녀의 심리적 안녕감과 평균 상관계수 .4를 넘는 주요 변인이었다(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성취를 중요시하는 현상은 자녀들의 자기가치감 수반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대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쟁과 학업적 유능감, 외모 영역이 합쳐져서 우월성이라는 요인에 자기가치감을 수반하였고(이수란, 이동귀, 2008), 유사하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가치감의 수반성 연구에서도 미국 연구결과와는 달리 한국 고등학생들은 경쟁과 학업적 유능성 영역이 합쳐진 학업 성취라는 요인에 의해 자기가치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신민섭, 송현주, 2013). 즉, 자녀들에게서 역시 학업적 유능감이 자기가치감 수반의 주요 영역임이 나타났고, 국외 연구와는 달리 개인내적 영역에 속하는 학업적 유능감이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승인이 필요한 외적인 자기가치감 수반성에 가깝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밭그니, 류정희, 2012).

지금까지의 한국인의 자존감 수반 영역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자녀와 공유된 자기 개념, 이와 관련된 대리적 성취감이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적 기대와 교육열의 원인으로 제시되어 온 배경에 관한 이해가 가능하다(박영신 등, 2002).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 체면 및 성취를 중시하고(Choi & Lee, 2002),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의존성이 높다(Phinney, Kim-Jo, Osorio, & Vilhjamsdottir, 2005).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성취로 여기며, 이를 통한 대리만족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왔다(Kim & Park, 2003). 이러한 한국 어머니들의 특성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한 국가들과도 구별된다.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유교사상에 근거한 집단주의가 발달했으나, 국가에 따라 발달 배경의 차이가 있다. 그 중에서 한국은 혈연에 기반을 둔 가족중심의 집단주의가 발달했고(이수인, 2010), 이와 같은 혈연 위주의 가족중심 집단주의에서는 어머니들의 자기개념에 가족구성원 중 그 누구보다 가까운 자녀가 포함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Triandis, 1995). 또한, 한국 사회는 급격히 경제가 발전하고 서구 문화가 유입되는 전환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상호의존적인 집단주의 세계관에 더해 다른 동양 국가들보다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강조되는 수직적 개인주의 사상이 유입되었다. 따라서 유교문화에서 중시하는 학문적 성취에 대한 동기와 경쟁이 더욱 강력해졌다(Park & Cheah, 2005; Park & Kwon, 2009). 그리하여 교육이 중시되는 한, 중, 일과 같은 유교문화권 내 국가 중 그 어느 곳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따라 어머니의 자기가치감을 수반하는 현상이 더욱 극

명하게 나타나기 쉽고, 그에 따른 어머니 그리고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녀의 성취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과 심리적 통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같은 어머니의 심리내적 변인과 자녀의 적응문제의 관계에서는 많은 경우 어머니의 심리내적 변인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 양육행동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Pargas, Brennan, Hammen, & Le Brocque, 2010). 자기가치 수반성 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의 자녀-수반 가치감은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는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동의 욕구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을 하기보다 자녀의 심리적 과정을 통제하는 양육을 할 가능성을 높인다. 개인은 외부의 평가를 받는 것과 같이 자기가치감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치감을 고양시키려 하고(Park & Crocker, 2005) 자기가치감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Crocker & Knight, 2005). 이렇게 자기가치감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집중은 자기가치감 추구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게 하고 타인의 관점을 취하거나 감정을 고려하기 어렵게 하여(Crocker, 2002; Crocker & Park, 2004)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Crocker, Lee, & Park, 2004). 따라서 어머니들의 지나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자녀의 정서적 필요나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간과하게 하여 역기능적 양육행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관련 있는 양육 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심리적 통제는,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대표

적인 부적응적 양육행동으로(Barber, 1996) 자녀의 감정표현 억제, 욕구 무시, 애정 철회, 죄책감 유발 등의 심리적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를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부모의 행동이다(Barber & Harmon, 2002). 심리적 통제는 일상적인 행동을 통제 및 관리하면서 엄격하지만 지지적인 모습을 보이는 행동통제와 구분된다. 즉, 어머니가 개인의 자기가치감과 연관되어 있는 자녀의 성취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자녀의 내적 세계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자녀에게 과도한 간섭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행동 간의 관계는 실험 및 종단연구를 통해 그 방향성이 확인되었다. Grolnick 등(2007)의 미국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연구에서는 자녀의 사회성에 수반된 자기가치감이 높고 자녀의 사회성이 평가되는 실험조건에서 어머니가 자녀의 과제 수행에 간섭하는 통제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 결과는 자녀에게 수반시킨 자기가치감이라는 내적 압력이 외적 압력, 즉 외부로부터의 평가 상황과 결합될 때 어머니들이 위협을 느끼고, 자녀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심리 및 정서적 과정에 더 간섭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Ng 등(2014)은 Grolnick 등(2007)에서 밝혀진 자녀의 수행에 수반시킨 어머니의 자기가치감 수준과 높은 통제 행동 간의 관계를 동양 문화권에서 처음으로 연구하였다. 미국에 비해 중국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높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Ng 등(2014)은 높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는 양육행동을 예측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중국 어머니들과 미국

어머니들에게서 모두 높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1년 뒤 더 높은 심리적 통제를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동양 부모들이 서양 부모들에 비해 자녀에게 더 많은 심리적 통제를 가하는 현상(Barber, Stolz, Olsen, Collins, & Burchinal, 2005; Wang, Pomerantz, & Chen, 2007)이 높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에 기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심리적 통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들에게까지도 지각되었다(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가 자신의 성공 지표로 작용하며, 자녀의 교육적 성취는 곧 장래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이어진다(박영신 등, 2002; Robinson, 1994). 이렇게 자녀의 성취가 사회적으로 평가되고 장기적인 성공을 예측하는 환경에서, 자녀의 성취로부터 많은 자기가치감을 얻는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동기화될 것이다. 이에 더해, 유교사상에서는 교육과 학업을 중시할 뿐 아니라 선천적 능력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성공을 낳는다고 보며(Stevenson et al., 1990),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개인내적 능력보다는 노력으로 대표되는 자기조절 영역이다(Park & Kim, 2006; 박영신 등, 2002). 이처럼 성공이 개인적인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는 한국 사회의 귀인 경향을 미루어 볼 때도, 자녀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한국 어머니들은 부정적 양육 행동인 심리적 통제를 통해서라도 자녀의 학업적 성취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자녀의 성취에 대한 자기가치 수반성과 심리적 통제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우울, 낮은 자존감, 공격성과 같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다(Barber et al., 2005). 이는 심리적 통제 양육이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인 자율성에 대한 욕구(Deci & Ryan, 2000)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이 깊으며, 발달단계상 자율성과 정체성 추구가 증가하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Nelson & Crick, 2002). 심리적 통제는 자율성과 심리적 독립을 중시하는 서구 문화권 뿐 아니라 상호의존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동양 문화권에서도 자녀의 적응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arber et al., 2005; Hasebe, Nucci, & Nucci, 2004; Soenens, Park, Vansteenkiste, & Mouratidis, 2012; Wang et al., 2007).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어머니-자녀의 관계 만족도와 자녀의 외로움 및 분노(안명희, 2014), 부적응적 완벽주의(우미경, 박영신, 2012), 외적 통제소재와 심리적 부적절감(안명희, 신희수, 2012)을 매개로 자녀의 우울과 불안, 낮은 자존감 등의 내재적 문제에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통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전미숙, 손은정, 2013). Ng 등(2014)은 이렇게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악영향을 주는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어머니 개인 변인으로서의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미국과 중국의 두 문화권 비교 연구를 통

해 밝혀냈다. 그리고 자녀의 심리적 적응 문제에 관하여 Ng 등(2014)은 어머니가 자녀의 학업적 성취에 자기가치감을 수반시키는 것이 아동의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점이 중국 청소년들이 미국 청소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Diener, Suh, Smith, & Shao, 1995) 이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문제 간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이미 동양 문화권에서 어머니들에게 오랫동안 강하게 자리 잡아온 가치이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과도한 교육열과 관련된 ‘치맛바람’, ‘극성엄마’와 같이 사회 및 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Ng et al., 2014)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반면(Barber, 1996), 자녀에게 수반시킨 어머니의 자기가치감 자체가 자녀의 정신건강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는 아직 경험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의 어머니들에게도 강하게 나타나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그 자체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지, 혹은 부정적 양육행동인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만 부정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예측할만한 국내 혹은 국외 연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상호의존성이 보편적인 동양 문화권에서 한 개인이 자기개념 형성에 있어 가까운 타인을 포함하는 일은 일반적

이며 특히 어머니-자녀와 같은 관계에서는 어머니나 자녀 모두 자기가치감에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Zhu, Ziang, Fan, & Han, 2007). 즉, 자녀와 어머니 간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문화적 맥락에서는(Fu & Markus, 2014) 자녀의 성공으로부터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감을 고양하는 현상이 어머니와 자녀 모두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부적응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를 자녀의 성공에 두는 것 자체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저해할 것이라 예측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어머니가 자기가치감의 고양을 위해 자녀의 성취에만 집중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를 통해서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이 위협 받으리라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이와 관련이 높은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를 완전매개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추가적으로, 아직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 직접적 관계에 대해 보다 탐색할 필요가 있다. 즉,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과 함께, 양육행동을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쟁모형에 대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심리적 통제 양육방식을 부분매개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 336명(남 163명, 여 173명)과 어머니 33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중 어머니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21명을 제외한 아동 315명(남 151명, 여 164명)과 어머니 31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하였다. 아동의 평균 연령은 11.02세($SD=.83$)였고,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1세($SD=3.22$)이었다. 어머니의 결혼 상태는 결혼 304명(96.5%), 별거 6명(1.9%), 이혼 1명(0.3%), 남편 사별 2명(0.6%), 무응답 2명(0.6%)이었다. 설문은 아동보고, 어머니보고, 교사보고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아동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아동 자신의 내재화 문제에 관해 보고하였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동에 대한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에 관해 보고하였다. 또한, 담임교사 12명이 각 학급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담임교사는 평균 30명의 아동의 설문에 응답하였고 자료 수집 당시 약 6개월 간 해당 아동의 답임을 맡고 있었다.

측정도구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측정하기 위해 Eaton과 Pomerantz(2004)가 개발한 Maternal Child-Based Worth 척도를 심리학 전공 교수와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한 심리학 석사 전공생, 그리고 한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미국 출생의 이중언어 구사자가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예: “우리 아이가 남보다 잘 하면, 나 자신이 훌륭하게 여겨진다.”)으로 Likert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설문 실시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 검증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했다.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한 최대우도법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Tataryn, & Gorsuch, 1996)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에서 제시한 것과 일치하게 본 연구대상에도 1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개선하기 위해 문항꾸러미 제작(item parceling)을 통해 세 요인으로 구성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Ng 등(2014)의 연구에서 미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가 보고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였고, 자녀-수반 자기가치감1, 2, 3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각각 .76, .72, .75였다.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행동은 기존 연구처럼 아동 보고에만 의존할 경우 아동의 심리적 기능에 의해 응답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 보고에만 의존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으로 응답이 편향될 수 있다(Kuppens, Grietens, Onghena, & Michiels, 2009; Wang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양육행동을 하는 어머니와 그것을 지각하는 자녀의 관점 모두를 고려한 보다 신뢰로운 측정을 위해(Ng et al., 2014) 어머니와 자녀의 보고 자료를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아동보고. 심리적 통제는 Barber(1996), Silk Morris, Kanaya와 Steinberg(2003)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를 Wang 등(2007)이 18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심리학 전공 교수와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한 심리학 석사 전공생, 그리고 한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미국 출생의 이중언어 구사자가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친 후, 초등학교 교사의 검토를 통해 어휘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설문을 실시 후, 이들의 이해 수준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의 의미는 보존하면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본 척도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행동(예: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나에게 차갑게 대하신다.”)에 관해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변안한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한 최대우도법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et al., 1996)을 실시한 결과 Ng 등(2014)에서 사용한 척도와 같이 본 연구대상에서도 1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Ng 등(2014)의 연구에서 미국 아동과 중국 아동이 보고한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각각 .92, .89였으며, 본 연구에서 아동이 보고한 심리적 통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0이었다.

어머니보고. 심리적 통제의 원척도는 아동 보고용으로, Ng 등(2014)의 연구에서는 이를 어머니보고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Ng 등(2014)은 자기보고에 있어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적 단어를 다소 순화시켜 사용하였다(예: “아이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덜 살갑게 대한다.”). 이처럼 어머니보고로 재구성한 18문항을 심리학 전공 교수와 학부에서 영어를 전공한 심리학 석사 전공생, 그리고 한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미국 출생의 이중언어 구사자가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고,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변안한 문항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각회전방식을 사용한 최대우도법과 보다 객관적인 요인수의 확보를 위해 parallel 분석(Wood et al., 1996)을 실시한 결과 역시 Ng 등(2014)에서 사용한 척도와 같이 본 연구대상에도 1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Ng 등(2014)의 연구에서 미국 어머니와 중국 어머니가 보고한 심리적 통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8,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어머니가 보고한 심리적 통계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자녀의 내재화 문제

아동기에는 일반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내적 상태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보고가,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문제는 자기보고에 비해 부모 및 교사보고가 더 정확하다는 선행 연구(Kolko & Kazdin, 1993; Monks, Smith, & Swettenham, 2003)에 근거하여 아동의 적응은 자기보고와 교사보고로 각각 측정하였다.

아동보고 우울. 아동이 보고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의 성인용 우울척도(CES-D)를 Weissman, Orvaschel와 Padian(1980)이 아동용으로 수정한 아동 및 청소년용 우울척도(CES-DC)를 양윤란, 양재원, 오경자(2008)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척도는 총 20

문항(예: “평소에는 괜찮았던 일인데 짜증이 났다.”)으로 Likert 4점 척도로 평정된다(1=전혀 아니다, 4=항상 그렇다). 본 연구에서 아동 우울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아동보고 불안. 아동이 보고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하고 조수철과 최진숙(1989)이 변안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상태-특성 불안척도의 하위요인인 특성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특성 불안척도는 총 20문항(예: “나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으로 Likert 3점 척도로 평정되며(1=전혀 아니다, 3=많이 그렇다), 본 연구에서 아동 불안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아동보고 낮은 자존감. 아동이 보고한 낮은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1)가 출판한 심리척도 핸드북 II에 수록된 자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예: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예: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느껴진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존감 5문항을 역채점하여 부정적 자존감 5문항과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고,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보고한 낮은 자존감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5였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

교사보고 과잉행동. 교사가 보고한 아동

의 과잉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Goodman(1997)이 개발하고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200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DQ-Kr)의 하위요인인 과잉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예: “차분하지 않고, 부산하며, 오랫동안 가만있지 못한다.”)으로 Likert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0=전혀 아니다, 2=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과잉행동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9였다.

교사보고 품행문제.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품행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DQ-Kr)의 하위요인인 품행문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예: “자주 분노 발작을 보이거나 불 같이 성질을 부린다.”)으로 Likert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0=전혀 아니다, 2=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품행문제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64였다.

교사보고 외현적 공격성.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Crick(1996)이 개발하고 김혜진(2011)이 사용한 Children's Social Behavior Scale의 하위요인인 외현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문항(예: “친구를 치고, 밀치고, 때민 적이 있다.”)으로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적 공격성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5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

여 주요 변인의 정규성 검토,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모형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구조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는 측정모형 검증을 통해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2단계는 구조모형을 통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관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덜 받는 상대적 지수인 TLI, CFI 그리고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기준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TLI, CFI가 .90 이상(Bentler, 1990)이고, RMSEA가 .08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끝으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심리적 적응 문제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Sobel, 1982)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의 왜도 및 첨도의 절댓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주요 잠재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 예상한 대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r=.42, p<.01$)이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

표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N=315)

	1	1-1	1-2	1-3	2	2-1	2-2	3	3-1	3-2	3-3	4	4-1	4-2	4-3
1.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1														
1-1. 자녀-수반 자기가치감1	.91**	1													
1-2. 자녀-수반 자기가치감2	.92**	.78**	1												
1-3. 자녀-수반 자기가치감3	.89**	.69**	.72**	1											
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42**	.42**	.37**	.34**	1										
2-1. 어머니보고	.54**	.56**	.50**	.43**	.72**	1									
2-2. 아동보고	.15*	.14*	.13*	.13*	.84**	.23**	1								
3. 자녀의 내재화 문제*	.14*	.14*	.13*	.10	.26**	.19**	.20**	1							
3-1. 아동보고 우울	.06	.07	.02	.06	.22**	.11	.21**	.92**	1						
3-2. 아동보고 불안	.11	.11	.12*	.04	.32**	.20**	.26**	.89**	.76**	1					
3-3. 아동보고 낮은 자존감	.12*	.11	.12*	.08	.26**	.18**	.21**	.87**	.70**	.63**	1				
4. 자녀의 외현화 문제*	.08	.05	.07	.11	.16**	.17**	.06	.04	.08	-.02	.10	1			
4-1. 교사보고 과잉행동	.06	.03	.04	.09	.13*	.13*	.10	.05	.07	.01	.12*	.86**	1		
4-2. 교사보고 품행문제	.11	.06	.11	.14*	.18**	.20**	.06	.04	.07	-.02	.12*	.91**	.65**	1	
4-3. 교사보고 공격성	.03	.03	.02	.06	.14*	.13*	.05	.00	.04	-.06	.03	.90**	.63**	.76**	1
평균	3.02	2.94	3.01	3.12	2.57	2.45	2.71	-.06	.54	.41	.99	-.01	.48	.23	1.58
표준편차	.93	1.02	1.03	1.04	.55	.61	.79	.85	.42	.36	.69	.88	.55	.31	1.04
왜도	.20	.35	.25	.31	.10	-.04	.24	1.17	1.31	1.18	.84	1.75	1.24	2.06	1.86
첨도	-.32	-.24	-.26	-.09	-.53	-.51	-.57	1.26	1.9	1.35	-.03	2.47	.69	4.80	2.34

주. * $p < .05$, ** $p < .01$, †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평균은 측정변인의 표준화 점수의 평균.

수반 자기가치감은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r=.14, p<.05$)이 있었지만, 외현화 문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r=.26, p<.01$) 및 외현화 문제($r=.16,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다중보고자에 의해 측정된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어머니보고 심리적 통제와 아동보고 심리적 통제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23, p<.01$). 자녀의 심리적응 문제에서 아동보고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아동보고 우울은 아동보고 불안($r=.76, p<.01$), 아동보고 낮은 자존감($r=.7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아동보고 불안은 아동보고 낮은 자존감($r=.6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녀의 외현화 문제에서 교사보고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교사보고 과잉행동은 교사보고 품행문제($r=.65, p<.01$), 교사보고 공격성($r=.63,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교사보고 품행문제는 교사보고 공격성($r=.76,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내재화 문제에서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 그리고

내재화 문제에 관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TLI는 .938, CFI는 .971, 그리고 RMSEA는 .078(90% 신뢰구간=.054-.104)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먼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심리적 통제가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51.971, 자유도(df)는 18, TLI는 .940, CFI는 .970, RMSEA는 .078(90% 신뢰구간=.053-.103)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심리적 통제가 부분매개하는 경쟁모형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는 49.880, 자유도(df)는 17, TLI는 .938, CFI는 .971, RMSEA는 .078(90% 신뢰구간=.054-.104)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경쟁모형에서 추가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의 내재화 문제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Delta df=1, \Delta \chi^2=2.091$ 감소한 것이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명도가 높고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그림 1). 구체적으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6($p<.001$), 심리적 통제와 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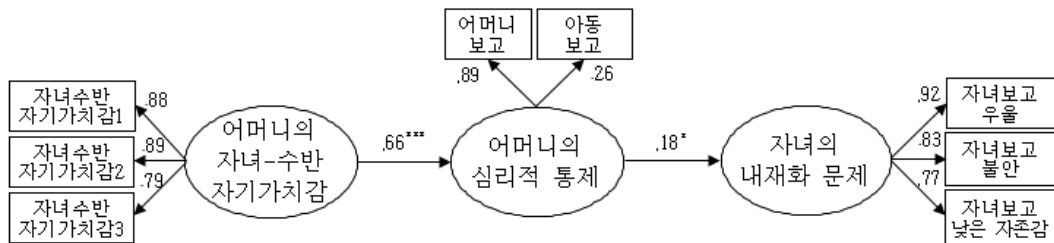


그림 1.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 내재화 문제의 구조모형(표준화된 회귀계수)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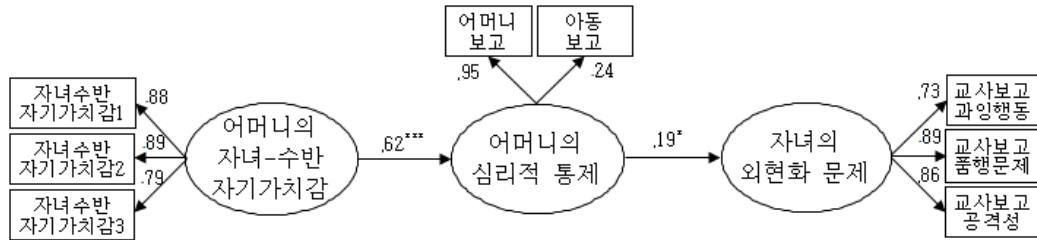


그림 2.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 외현화 문제의 구조모형(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8(p < .05)$ 이었다. Sobel 검증을 통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심리적 통제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z = 2.34, p < .05$).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외현화 문제에서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검증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심리적 통제, 그리고 외현화 문제에 관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 TLI는 $.989$, CFI는 $.995$, 그리고 RMSEA는 $.033$ (90% 신뢰구간= $.000-.064$)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먼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를 심리적 통제가 완전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χ^2 는 22.998 , 자유도(df)는 18 , TLI는 $.991$, CFI는 $.996$, RMSEA는 $.030$ (90% 신뢰구간= $.000-.062$)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외현화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심리적 통제가 부분매개하는 경쟁모형의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는 22.655 , 자유도(df)는 17 , TLI는 $.989$, CFI는 $.995$, RMSEA는 $.033$ (90% 신뢰구간= $.000-.064$)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

다. 경쟁모형에서 추가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의 외현화 문제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 결과,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Delta df = 1, \Delta \chi^2 = .343$ 감소한 것이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명도가 높고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했다.

최종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그림 2). 구체적으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62(p < .001)$, 심리적 통제와 외현화 문제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9(p < .05)$ 였다. Sobel 검증을 통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심리적 통제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외현화 문제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z = 2.41, p < .01$).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문제로 오랫동안 지목되어 온 한국 내 과도한 교육열과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자녀의 성취를 중시하고 자녀의 성취에

서 자신의 가치감을 찾는 어머니들의 특성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현상인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체보다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부정적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과 결합되었을 때 자녀들의 심리적 건강이 저해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과 어머니 그리고 담임교사들이 보고한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본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대로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에서 자녀의 적응 문제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들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체는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본 연구결과는 자기개념에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동양 문화권의 특성(Fu & Markus, 2014; Zhu et al., 2007)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Zhu와 동료들이 유럽계 미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의 자기개념과 타인개념의 뇌 활성화 영역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유럽계 미국 대학생들이 자신과 어머니를 개념화할 때 활성화된 뇌의 영역이 서로 달랐던 것에 반해 중국 대학생들은 자기와 어머니를 개념화 할 때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Zhu et al., 2007). 즉, 신경생물학적으로도 자녀들이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동양 문화권 내에서는, 어머니가 자녀 성취로부터 자기가치감을 얻는 현상이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Fu와 Markus(2014)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계 미국 청소년에 비해 동양계 미국 청소년들은 어머니와 자신이 보다 상호 의존적이라 보고했으며,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더욱 지지적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달리 유럽계 미국 청소년들은 아시아계 미국 청소년에 비해 어머니와의 상호의존성도 더 낮았고, 어머니와의 상호의존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심리적 지지 수준도 더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상호의존성을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으로 측정하였는데, Fu와 Markus(2014)의 연구에서처럼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자체는 자녀들에게 어머니와의 밀접한 유대나 심리적 지지로 여겨졌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 있다. 어머니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양육방법과 자녀 적응에 관한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인이 소속한 집단을 중시하고 집단에서의 조화에 가치를 두는 양육방식이 강할수록 자녀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수준이 더 낮았다(민하영, 이영미, 2009). 즉, 집단주의나 개인주의 양육방식 어느 하나가 우위를 가지기보다, 문화적으로 일치된 양육방식일수록 같은 문화권 내에서 적응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은 심리적 통제를 매개로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각각 예측하였다. 즉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취에 어머니 자신의 가치를 수반하면서 발생한 역기능적 양육방식인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을 저해한 것이다.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간 유의한 관계는 미국과 중국 어머니 모두에게서 자녀-수반 자기가

치감이 심리적 통제와 관련 있음을 증명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Grolnick et al., 2007; Ng et al., 2014). Park과 Crocker(200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목표 추구가 타인을 향한 지지 행동과 부적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 자신의 자존감과 관련된 목표 추구에 해당하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자녀의 정서적 욕구의 고려가 적은 양육행동인 심리적 통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보고한 우울, 불안과 낮은 자존감의 내재화 문제, 그리고 교사가 보고한 자녀의 과잉행동, 품행문제 및 외현적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와 정적 관련이 있었다. 이 결과는 통제적인 환경이 자율성에 대한 보편적인 욕구를 저해한다는 Deci와 Ryan(1985)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부합하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아동과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예측한다는 국내외 경험적 연구들(안명희, 2010; Barber & Harmon, 2002)과 일치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학업적 적응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자녀의 정서적 기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Fu와 Markus(2014)의 연구결과와 Ng 등(2014)의 예상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사회 및 문화심리학에서 연구되어 온 문화에 따른 자기구성(self-construal) 차이에 관한 개념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확장시킨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집단주의의 상호의존성 이론을 한국의 토착적 현상에 접목시켜, 가족 관계 내 어머니의 자기구성에 관해 경험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통제 간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동양 문화권에서 자기개념에

타인을 포함하고 자녀가 어머니 개인의 자기가치감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발달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던 자녀 양육에 주는 함의를 연구하였다. 더불어 상담 및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성취 지향적 환경이 어머니와 자녀 간 관계 역동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언어로 회자되어 온 과도한 교육열의 현상을 심리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취로부터 자존감을 얻는 심리내적 특성 전체를 잘못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심리적 통제 양육이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보면, 청소년들이 학업에 열중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을 인지하고 이를 학업적 성공으로 보답하기 위한 시도와(Fuligni, 2007) 자녀의 성공을 위해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들의 양육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Ng et al., 2013). 마찬가지로, 한국 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개인적 동기보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관계적 동기, 대학 입학을 위한 사회적 동기가 더 높은 특성도 보인다(Park & Kim, 2006). 이처럼 자녀의 성공이 자녀 개인적 성공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협업의 결과로 여겨지는 상호의존적 동양 문화권에서는 어머니의 학업적 관여와 압력이 동기를 이끌어 내는 자원이 될 수도 있다(Fu & Markus, 2014). 그러나 자녀의 성취에 자신의 자존감을 수반시키는 현상과 이에 뒤따르는 자녀의 성취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학업에는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더라도,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하듯 자녀의 정서적 기능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Barber et al., 2005; Ng et al., 2014). 종합하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관련된 심리적 통제 양육은 한국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적 성취와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심리내적 특성과 양육 변인이 자녀의 적응에 종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높은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심리적 통제를 종단적으로 예측하였는데(Ng et al., 2014),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연구에 심리적 적응을 결과 변인으로 포함하여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장기적인 효과와 변인 간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후기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인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자녀의 학교급에 따라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관계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교육과 성취에 관여함을 고려할 때(Park & Kwon, 2009),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형도 본 연구의 초등학교 고학년 모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학교 입시가 더욱 가까워지는 청소년기의 경우, 학업적 성패가 결정되는 평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어머니들의 심리적 통제는 더욱 증가하고 발달 단계 상 자율성에 대한 욕구는 더욱 강해져서 자녀가 더 높은 심리적 적응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을 문화적 현상으로 개념화하더라도 같은 문화권 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개인차는 존재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의 개인차를 예측 및 설명할 변인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권에 따라 통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통제의 척도는 서양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문항들은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양 문화권에서 심리적 통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자율성보다는 집단 내에서의 조화와 융합을 강조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통제 그리고 심리적 통제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Chao & Aque, 2009; Kim, 2005). 후속연구에서는 토착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정서를 더 잘 반영한 통제 척도를 사용하여 본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모형에서 심리적 통제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가 각각 보고하였으나 그 일치도가 낮아 자녀의 심리적 통제 측정치의 요인부하량이 낮게 나타났다(.24, .26). 보고자 특성에 의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보고자 모형을 사용할 경우 이처럼 보고자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한국 문화에 적합한 통제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자녀보고 간 일치도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고, 아버지와 같은 제 3자의 보고를 포함하는 연구도 가능하다(Kuppens et al., 2009). 넷째,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한국의 어머니-자녀 관계에 주는 영향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양육행동 외에도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긍정적 양육행

동 변인(예: 정서적 지지, 행동통제)과의 관련성 또한 연구되어야 한다. 앞서 논의에서 언급하였듯, 어머니가 자녀 성취로부터 자신의 자존감을 얻는 것이 자녀들에게 어머니와의 밀접한 애착 관계나 정서적 지지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자녀-수반 자기가치감과 심리적 적응 간의 긍정적 관계도 예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어머니-자녀 관계의 질, 긍정적 양육행동, 그리고 자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녀-수반 자기가치감이 양육행동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하였지만, 어머니 본인의 심리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검증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특히 개인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외부 요소에 자존감을 수반시키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우울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ambren, Acitelli, & Steinberg, 2010; Crocker, 2002; Crocker et al, 2003; Sanchez & Kwang, 2007).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성취에 자존감을 수반시키는 것이 어머니 본인의 정신건강과 양육, 그리고 자녀 변인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1). 심리 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구경호, 김석우 (2014). 초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 학업탄력성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8), 69-89.
 김송이 (2008). 한국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심

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2), 13-23.
 김혜진 (2011).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 승인 욕구,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결과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희화 (2005). 초기 청소년의 정서적 자율성과 심리적 복지감 및 비행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감독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2(4), 151-168.
 남정민, 성현란, 권선영 (2014). 지각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이 남·여 중학생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47-167.
 민하영, 이영미 (2009). 어머니의 집단주의적 양육가치가 유아의 공격 및 불안행동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가족과문화, 21(4), 21-39.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 성인 남녀가 행복에 이르는 길: 직업 성취, 자녀 성공, 정서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3), 467-495.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 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선혜연, 오정희 (2014).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초등학교와 중학생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4(1), 197-212.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안명희 (2010).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안명희 (2014). 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우울: 모-자녀 관계만족도, 분노,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37-758.
- 안명희, 신희수 (2012).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227-253.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 (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 개발. 대한신경정신의학, 42(1), 141-147.
- 양윤란, 양재원, 오경자 (2008).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간의 시간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1), 35-50.
- 우미경, 박영신 (2012). 초등학교 아동들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통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부적응적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57-174.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2013). 한국형 자존감 평가영역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271-298.
- 이수란, 이동귀 (2008). 자존감의 영역별 수반성과 자기 평가 간 불일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313-335.
- 이수인 (2010). 집단주의 형성 요인과 과정,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 수평적-수직적 집단주의에 대한 가족 및 학교경험의 효과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8, 256-299.
- 장혜경, 신민섭, 송현주 (2013). 한국 고등학생의 자기-가치감 수반성 척도 타당화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4, 91-119.
- 전미숙, 손은정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자기통제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 청소년시설행경, 11(2), 19-27.
- 조발그니, 류정희 (2012). 학습기술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유능성, 가족의 지지) 자기가치 수반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1-21.
- 조수철, 최진숙 (1989). 한국형 소아의 상태·특성불안척도의 개발. 서울의대정신의학, 14(3), 150-157.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1), 105-139.
- 한유미, 권희경 (2006).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자녀의 성취 및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아동과 권리, 10(4), 751-769.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on, A., McLaughlin-Volpe, T., Mashek, D., Lewandowski, G., Wright, S. C., & Aron, E. N. (2004). Including others in the self.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5, 101-132.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 3296-3319.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Collins, W. A., & Burchinal, M. (2005).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0*, 1-14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Cambron, M. J., Acitelli, L. K., & Steinberg, L. (2010). When friends make you blue: The role of friendship contingent self-esteem in predicting self-esteem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 384-397.
- Chao, R. K., & Aque, C. (2009). Interpretations of parental control by Asian immigrant and European American yout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 342-354.
- Choi, S. C., & Lee, S. J. (2002). Two-component model of Chemyon-oriented behaviors in Korea: Constructive and defensive Chemy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332-345.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ocker, J. (2002). The costs of seeking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Issues, 58*, 597-615.
- Crocker, J., & Knight, K. M. (2005). Contingencies of self-wor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200-203.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414.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Bulletin, 108*, 593-623.
- Crocker, J., Lee, S. J., & Park, L. E. (2004). The pursuit of self-esteem: Implications for good and evil. In A. G. Miller (Ed.), *The social psychology of good and evil*, (pp. 271-302). New York: Guilford Press.
- Crocker, J., Luhtanen, R. K., Cooper, M. L., & Bouvrette, A. (2003). Contingencies of self-worth in college students: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894-908.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 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iener, E., Suh, E. M., Smith, H., & Shao, L. (1995). National differences in reported subjective well-being: Why do they occur? *Social Indicators Research, 34*, 7-32.
- Eaton, M. M., & Pomerantz, E. M. (2004).

- Parental contingent self-worth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Fu, A. S., & Markus, H. R. (2014). My mother and me: Why tiger mothers motivate Asian Americans but not European America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0, 739-749.
- Fulgini, A. J. (2007). Family obligation, college enrollment, and emerging adulthood in Asian and Lati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 96-100.
- Gardner, W. L., Gabriel, S., & Hochschild, L. (2002). When you and I are "we," you are not threatening: The role of self-expansion in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239-251.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581-586.
- Grolnick, W. S., Price, C. E., Beiswenger, K. L., & Sauck, C. C. (2007). Evaluative pressure in mothers: Effects of situation, maternal, and child characteristics on autonomy supportive versus controll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3, 991-1002.
- Hasebe, Y., Nucci, L., & Nucci, M. S. (2004). Parental control of the personal domain and adolescent symptoms of psychopathology: A cross-national stud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hild Development*, 75, 815-828.
- Kim, E. (2005). Korean American parental control: Acceptance or rejection? *Ethos*, 3, 347-366.
- Kim, U., & Park, Y. S. (2003). An indigenous analysis of success attribution: Comparison of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 K. S. Yang, K. K. Hwang, P. Pedersen, & I. Daibo (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tributions* (pp. 171-195). New York: Praeger.
- Kolko, D. J., & Kazdin, A. E. (1993).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clinic and nonclinic children: Correspondence among child, parent and teacher reports.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34, 991-1006.
- Kuppens, S., Grietens, H., Onghena, P., & Michiels, D. (2009). Measuring parenting dimensions in middle childhood: Multitrait-multimethod analysis of child, mother, and father rating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5, 133-140.
- Monks, C. P., Smith, P. K., & Swettenham, J. (2003). Aggressors, victims, and defenders in preschool: Peer, self-, and teacher reports. *Merrill-Palmer Quarterly*, 49, 453-469.
- Nelson, D.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61-1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g, F. F., Pomerantz, E. M., & Deng, C. (2014). Why are Chinese mothers more controlling than American mothers? "My child is my report card." *Child Development*, 85, 355-369.
- Ng, F. F., Pomerantz, E. M., & Lam, S. F. (2013). Mothers' beliefs about children's

- learning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mothers' child-based worth.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7, 387-394.
- Pargas, R. C. M., Brennan, P. A., Hammen, C., & Le Brocque, R. (2010). Resilience to maternal depression in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6, 805-814.
- Park, S. Y., & Cheah, C. S. L. (2005). Korean mothers proactive socialis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24-34.
- Park, L. E., & Crocker, J. (2005).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seeking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587-1598.
- Park, Y. S., & Kim, U. (2006). Family,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In U. Kim, K. S. Yang, & K. K. Hwang (Eds.),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pp. 421-443). New York: Springer.
- Park, J. H., & Kwon, Y. I. (2009). Parental goals and parenting practices of upper-middle-class Korean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7, 58-75.
- Phinney, J. S., Kim-Jo, T., Osorio, S., & Vilhjalmsdottir, P. (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parent disagreements: Ethnic and developmental factor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0, 8-39.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binson, J. (1994). Social status and academic success in South Korea.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8, 506-53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anchez, D. T., & Kwang, T. (2007). When the relationship becomes her: Revisiting women's body concerns from a relationship contingency perspectiv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 401-414.
- Silk, J. S., Morris, A. S., Kanaya, T., & Steinberg, L. (2003).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 granting: Opposite ends of a continuum or distinct constru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 113-128.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3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oenens, B., Park, S. Y., Vansteenkiste, M., & Mouratidis, A. (2012).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ve experiences: A cross-cultural study with Belgian and South-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5, 261-272.
- Spielberger, C. D., & Gorsuch, R., & Lushene, R.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

- Press.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 841-851.
- Stevenson, H. W., Lee, S., Chen, C., Stigler, J. W., Hsu, C., Kitamura, S., & Hatano, G. (1990). Contexts of achievement: A study of American, Chinese, and Japanese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1*, i-119.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Wang, Q., Pomerantz, E. M., & Chen, H. (2007). The role of parents' control in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hild Development, 78*, 1592-1610.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 (1980). Children's symptom and social functioning self-report scales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736-740.
- Wood, J. M., Tataryn, D. J., & Gorsuch, R. L. (1996). Effects of under- and overextraction on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rotation. *Psychological Methods, 1*, 354-365.
- Zhu, Y., Zhang, L., Fan, J., & Han, S. (2007). Neural basis of cultural influence on self-representation. *NeuroImage, 34*, 1310-1316.

1차원고접수 : 2014. 08. 18.

수정원고접수 : 2014. 11. 03.

최종 게재 결정 : 2015. 01. 26.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Kyoung Ok Seol

Yena Kyeong

Ji Eun Park

Ewha Womans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Korean mother's tendency to base their feelings of worth contingent on children's academic performance (i.e., child-based self-worth), on mother'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hypothesis is that Korean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is more of a cultural phenomenon and child-based self-worth itself would not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children's psychological functioning. Yet, when Korean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was associated with maladaptive parenting behavior (i.e.,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it was detrimental to their children. In other words, the hypothesis is that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would fu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based self-worth of mother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children's. The hypothesis was tested among 315 children from 4~6 grade ($M=11.02$, $SD=.83$), and their mothers. Mothers reported child-based self-worth. Mothers and children reported mothers'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Children reported on their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their school teachers reported on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The hypothesis was confirm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predicted,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itself was not related to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owever, mother's child-based self-worth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and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ing in turn, predict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child-based self-worth, Korean mothers, parenting, parental relationships